

여름호 2009. 8 No.5

동/물/보/호/지

# 함께 나누는 삶

반려동물문화캠페인 5  
공동주택에서 함께 사는 에티켓

견생역전  
노아

ISSUE

바람기 유래 야생동물 지정

INTERVIEW

김현성 사진작가

Animal Watch

진도개

세상읽기

생명이 주는 기쁨

현장에서

2009 반려동물 사진전



## CONTENTS



- 1 **여는 글** | 품 나는 인간으로 살기 위한 습관 하나
- 2 **견생역전** | 화물차 밑에서 살았던 노아의 행복한 입양이야기
- 4 반려동물 문화캠페인 5 | 공동주택에서 함께 살기 위한 에티켓
- 6 **입양해주세요** | 행당동의 재롱둥이 똥식군을 소개합니다!
- 7 **동물보호법 FAQ** | 길에 돌아다니는 유기동물을 포획해 판매해도 되나요?
- 8 **Issue** | 비둘기 유해 야생동물 지정
- 10 **Animal Photography** | 사진으로 보는 진도개
- 12 **Animal Watch** | 진도개, 혈통 보존 정책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 14 **새성원기** | 생명이 주는 기쁨
- 16 **INTERVIEW** | 김현성 사진작가
- 18 **현장에서** | 2009 반려동물 사진 전시회
- 20 활동소식 | 2009년 5월~2009년 8월
- 22 **Live on vegetables** | 여름철의 별미콩국수와 사계절 건강식 콩탕
- 23 포토행당뉴스



## 폼 나는 인간으로 살기 위한 습관 하나



조희경 | 대표

“와우~ 여름이다!” 하는 노래에 어깨가 들썩일 것 같은 계절에 우리의 동물 친구님들도 행복한 휴가 보내셨는지요? 지난 8월 1일 서울 광화문 광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개장 날에는 많은 인파가 몰렸고 저는 그 주변을 지나는데 길에 광장을 들러봤습니다. 분수 쇼에 맞춰 신나게 물놀이를 하는 어린이들을 볼 수 있었는데, 온몸이 물에 젖어도 아이들은 마냥 즐거워 하더군요. 많은 이들에게는 신나는 물놀이와 시원한 계곡에서의 휴가가 무더운 여름에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광장 이야기를 하니 바로 떠오르는 동물이 있네요. 평화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 88 서울올림픽 이후로 더욱 빠르게 번식돼 개체 수가 증가했습니다. 한동안 한강시민공원을 비롯해 도시의 주요 공원에서는 비둘기 먹이를 판매하며 비둘기를 즐기는 시민들을 부추기면서 비둘기는 닭돌기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는 비둘기를 유해 조수로 지정해야 한다는 정부의 움직임이 발생했네요. 우리나라에서 유해 조수로 지정된다는 것은 곧 대량 살육과 연관됩니다.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대량 살육이란 사회적 정서로도 그리 좋은 것은 아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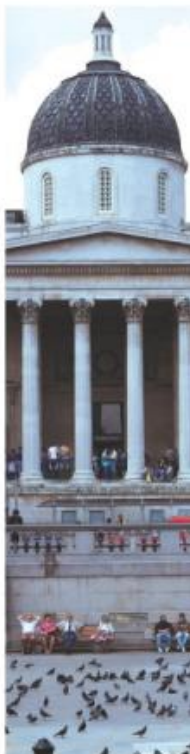
몇 해 전 영국에 출장을 갔다가 기차 역사 치마에 뽀족뽀족한 침이 박힌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긴 적이 있었습니다. 현지인에게 물어보니 그것이 도시 비둘기를 관리하는 도구였더군요. 비둘기 집근 방지용 스파이크였던 거예요. 동물복지가 가장 먼저 발생한 영국 사회에서도 비둘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네요. 이렇듯 다른 나라의 사례도 살피며 비둘기와 함께 공존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선행된 후

도시 비둘기 관리 방안 정책을 마련한다면 우리도 걱정을 덜 하겠지요.

저는 길거리에서 비둘기로부터 오물 세례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제 머리에 떨어진 비둘기의 변은 엄청난 소음을 내며 제 머리와 옷을 더럽히더군요. 저는 그 황당한 상황에 웃으면서 휴지를 찾아 오물을 닦아내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옆 사람이 비둘기를 향해 화를 내더군요. 비둘기가 알아들었을까요? 그런데요 아마 저도 예전 같았으면 비둘기를 향해 화를 냈을 것입니다.

습관! 습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동물을 대하는 태도가 여유로울 수 있도록 습관화시키는 것이지요. 동물을 좋아하지 않는 것과 생태 특성을 존중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뱀이 혐오스럽고 싫다고 해도 그들의 생태는 존중돼야 합니다.

인간들은 동물이 필요합니다. 그 필요로 하는 이유가 물질적 이득을 위해서든 인간 생존에 필요한 생태 환경 유지 또는 정서를 위해서든 인간은 동물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동물로부터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라면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불편해하기보다는 함께 공존하는 방안을 찾는 사회, 이것이 인간에게도 이로운 사회가 아닐까요? 동물을 청소하듯 없애버리는 것보다는 인간으로서 폼나는 일이 될 것 같은데 말이지요. ☺



\* 닭돌기 : 역을거리가 뚫려 비둘기가 멀리 날아 갈 필요도 없어지고 너무 많이 먹어서 똥똥해져서 잘 날지 않아서 이르게 된 말.



■ 견생역전

## 화물차 밑에서 살았던 노아의 행복한 입양이야기

노아의 주인인 화물차 기사님은 이름뿐인 소유자이고 노아는 편히 쉴 보급자리도 목숨을 이어 줄 음식도 그 어떤 것도 제공받지 못한 채 3년을 화물차 밑을 전전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주린 배를 채우려고 근처 식당 주위를 떠돌았지만 더럽다고 쫓겨나기 일쑤고, 사무실 직원이 점심에 먹다 남은 음식들을 가져다 줬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남은 음식이 없을 때는 하루 종일 굶을 수밖에 없었대요.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동물자유연대 회원이 노아의 딱한 사정을 사무실에 알려왔지만 구조를 쉽게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노아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개들이 너무 많고 이 아이들을 다 보듬아 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하지만 회원님의 간곡하면서도

책임감 있는 태도는 앞으로 노아를 보호하고 입양 보내는 데 있어 최선을 다해 도와줄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추운 겨울밤, 그 밤에도



▲ 구조 직후 모습

화물차 밑에서 쪽잠을 자야 했던 노아를 그냥 둘 수가 없어 행당동행 급행 방주에 태워 서울로 이송을 부탁드

렸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질병 검사를 하고 고질고질 더러운 털을 미용해서 안락한 행당동 보급자리로 오기로 했는데요.

맘소사~! 검사 결과 개들에게는 치명적인 심장사상충에 감염이 돼 있었어요. 치료도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드는, 그렇지만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채 1년도 살지 못하는 병... 우리는 여태껏 힘겹게 살았던 노아에게 새 삶을 주고자 긴 치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치료가 막바지에 이른 어느 날, 노아를 입양하고 싶다는 한 젊은 남자의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사실 남자가 입양을 신청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라 아직 몸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경계심이 남아있어 수월하지 않은 노아를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하며 지금의 노아 행아를 만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에 오신 첫 날 한눈에 노아를 알아보곤

우리 멧돼지가 평생한테 머물러지 않는  
동생의 새날 사진은 이제 그만 봐요!



하트를 마구 마구 쓰는 다정다감한 성격과 사무실 아이들까지 생각해 간식을 챙겨온 넓은 마음에 그만 똥 가서 노아를 안겨드리게 되었으니...

지금은 너무 든든한 후광을 등에 업고 의기양양해 뽐사시한 털을 날리는 이놈이 예전 그 눈칫밥을 먹던 노아가 맞는지도 가물가물 합니다. 아무리 오랜만이어도 그렇지 그래도 행당동이 고향이고 제가 엄마였는데도 으르렁거리며 헐박까지 해 대고 말입니다. 하하

그래도 좋구나 노아야~, 그렇게 형아 뱃 밟고 당당하게 사는 거야. ㄹ

#### 노아입양자 박태영씨 인터뷰

노아의 입양 문제를 놓고 적잖이 고민한 게 사실입니다. 연민과 동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강한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점이 부담이었고 어머니의 반대도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입양하는 쪽으로 기울었고 마지막 점검차 친구와 상의하기 위해 음식점에 들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 주인이 키우는 시츨 녀석이 제게 와 안아달라 보채더군요. 그전에는 머리를 쓸어주는 정도 외에는 단 한번도 강아지를 안아 본 적이 없었는데, 그 녀석, 노아의 입양 문제로 고민 중인 걸 알았던지 아니면 노아의 전령 역할을 한 건지 아직도 의문입니다. 그렇게 녀석의 체온을 느끼고는 바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동물자유연대에 가자~!"

입양 첫 날부터 약 6달간 계속되는 병원 진료와 변을 가리지 못하는 노아를 종일 돌봐야 하는 어머니는 쉽게 정을 주지 못하고 "지금이라도 도로 데려다 주라"는 말 씀을 자주 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에서 노아의 구조 당시 사진을 보여주셨더니 "애가 노아야?" 하시며 울먹하시더니 그때부터 노아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셨습니다. 이제는 조카들보다 더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걸 보면 노아가 정말 복이 있나 봅니다. 그리고 노아를 입양한 후 어머니의 표정이 무척 밝아지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 선택이 대성공

이라 볼 수 있겠죠! ㅎㅎ

며칠 전 중성화 수술 때문에 동물자유연대에 노아를 맡기고 입양 후 처음으로 노아 없이 하룻밤을 지낸 날이 있었습니다. 보통 밤 열 시 정도면 잠자리에 드시는 어머니가 자정이 다되어 제 방으로 건너 오셔서 "노아가 자는 데는 어떠니? 지금쯤 마취가 풀려 꽤 아플 텐데..." 하시며 긴 한숨을 쉬신다. 그러다 "식구 하나 없어진 것보다 더 허전하네" 하시며 방을 나가셨습니다.

노아를 위해 내린 결정이었지만 사실 노아의 할머니와 제가 더 큰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막상 해보면 별로 어려울 건 없는데 처음엔 뭘 그리 고민했는지, 사랑은 받을 때보다 줄 때 더 행복

하다"는 말이 요즘 피부에 와닿습니다. 작은 관심과 배려가 우리를 풍요롭게 해줄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준 노아가 너무 고맙고 사랑스럽습니다. 단 짚는 것만 빼면 완벽할 텐데...

아래층 아주머니가 언제 또 올라오실까 두렵단다. 노아야~ 제발 그만 좀 짚어다오. ㄹ



노아를 위해 내린 결정이었지만 사실 노아 할머니와 제가 더 큰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에서 함께 살기 위한 에티켓



생활수준 향상과 핵가족화 내지는 독신 인구 증가 등 사회적인 이유로 개나 고양이 등을 반려동물로 기르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여러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소음이나 위생상의 문제, 혹은 단순한 호불호 등의 이유로 주변 주민들과의 분쟁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주민 자치 또는 관리소 측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반려동물을 아예 키우지 못하게 하거나 벌금 등을 부과하면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의 고민이 증가하고 있다.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웃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에서 지켜야 할 룰이 있듯이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룰도 엄연히 존재한다. 동물을 기르고 그들과 교류하며 정신적·정서적 안정을 얻을 권리가 있듯이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불편감을 느끼지 않을 권리 또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한다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기는 무척 힘이 들 것이다.

### 그렇다면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할까.

**첫 번째로 가장 큰 분쟁의 요소가 되는 것은 소음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동물들은 대부분 울거나 짖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현재의 상태를 알리기 때문에 방음 시설이 미비한 국내 건축 환경에서는 치명적인 불만사항이 될 수 있다. 이것은 훈련을 통해 통제해야 한다. 레몬즙, 깻통 안에 물을 넣어 흔들기, 짖음 방지기 사용 등 다양한 방식의 훈련 방식이 있다. 이런 방법도 모두 실패했을 때 때로는 성대수술까지 고려할 수도 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원칙을 벗어나는 것이지 만 반려동물을 포기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끔찍한 일들보다는 나을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많은 반려동물들이 주인의 손에서 벗어나 다시 유기되거나 학대, 심지어 개고기 시장으로 흘러가기도 한다. 고양이의 경우는 야간에 계속 울거나 발정기가 도래했을 때 심하게 우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증성화 수술을 통해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 고양이뿐 아니라 개에게도 증성화 수술은 질병을 예방하고

무분별한 번식을 막아주며 발정기에 집을 뛰쳐나가는 것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입양할 때 꼭 해주는 것이 좋다.

#### 두 번째로는 동물 특유의 냄새나 분비물 혹은 배설물의 악취를 들 수 있다.

동물의 위생 상태는 건강 상태와도 직결하므로 주의를 기울이고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배설물을 오래 방치하거나 하수구를 통해 흘러간 분변 때문에 냄새가 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산책을 할 때 뒷정리를 깔끔하게 해줘야 한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나 근처의 공원에서 보이는 동물들의 배설물은 이웃에게 불편감을 줄 수 있다. 산책 시에는 항상 비닐 봉투와 집게 등을 구비해 반려동물이 배변을 했을 경우 즉시 뒤처리를 해주고, 가능한 한 엘리베이터에서는 반려동물을 안고 타는 것은 이웃의 불편감이나 공포감 등을 줄일 수 있다. 귀찮더라도 자신이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타인에게 미움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잘 돌봐줘야 할 것이다.

#### 세 번째로는 일정 수준의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주인 이외의 사람에게 지나치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을 때 반드시 제재를 가해야만 한다. 이웃에게 위험한 동물이라는 인상을 주게 되면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동물을 두려워하는 통행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목줄을 채우고 동물의 행동을 세심하게 통제해야 한다. 또한 바쁜 현대인의 생활 패턴으로 인해 반려동물이 혼자 집에 있게 되는 시간이 길어져 훈련이 조금이라도 돼 있지 않았다면 알짖을 심하게 부리고 집기를 어지르거나, 문을 심하게 긁고 또는 시끄럽게 뛰어다니는 등의 소음 때문에 이웃의 불만을 야기하는 일이 초래될 것이다.

가장 기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꼽아봤지만 항상 모든 상황이 같을 수는 없듯이 이웃의 요구에 맞춰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러분의 또 하나의 가족 구성원인 반려동물과 함께 하기 위한 노력에 인색해서는 안 될 것이다. 동물을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기쁜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배려한다면, 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인 시선 또한 긍정적으로 바뀌어 갈 것이다. 



# 행당동의 재롱둥이 퐁식군을 소개합니다!

윤정영 | 담당



퐁명이, 퐁이, 땡이, 퐁식이 등 다양한 개인지 만큼이나 애칭 또한 많은 퐁식군. 개인지라곤 깎아놓은 패드 비커서 엉뚱한 데 쉬하기, 컴퓨터 연결선 물어뜯어서 AS 비용 왕창 물게 하기, '앗 애! 손!' 하면 밀동밀동 쳐다보기만 하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 우리 퐁식은 하루만에 두 발로 서기, 서, 앉아, 쉬어까지도 다 알아듣고 척척 해내는 천재로 화려한 입소식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이런 귀여운 개인지도 그들에게겐 버거운 것이었나 봅니다.

행당동 사무실 대문 안으로 밀어넣어진 가여운 퐁식은 누구를 위해 그 많은 훈련을 받아야 했던 걸까요? 결국엔 이렇게 버릴 거면서...

밝고 애교 많고 샘도 많은 퐁식은 한동안 행당동에서의 생활을 즐거워했던 것 같더니 요즘은 좀 이상합니다. 부쩍 활동성이 떨어지면서 만사가 귀찮은 듯 무미건조한 눈빛을 자주 보입니다. 관심을 가지면 위해, 시고럽다고 혼나기만 할 걸... 그렇게 눈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행당동 생활을 시작한 지 반 년이 훌쩍 넘어가는 퐁식은 처음엔 피부가 점점 아토피로 변하고 행당동에 옮이 돌아왔던 때는 가장 심하게 알기도 했습니다. 마음의 병인 우울증이 몸의 면역력도 떨어뜨린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얼마나 사랑과 관심을 갈구하는지 다른 아이를 안아주면 샘내는 게 장난이 아니예요. 퐁퐁한 몸으로 방방 뛰면서 안아 달라 보챌 때는 퐁식이만 챙겨줄 수 없는 것이 또 다시 마음의 짐이 되곤 합니다.

퐁식은 기다립니다. 충성스럽고 든직한 눈망울을 부담이 아닌 사랑으로 받아주실 천사님이 꼭 나타나실 거라고요.

많은 아이들이 부대끼며 살아가는 행당동에선 오늘도 한번이라도 눈에 들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미 버려져서 상처를 받은 아이들, 모진 학대 속에서 더 큰 상처를 받은 아이들이라지만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요. 마음 한편에 그 고통을 숨기고 있을지언정 지금의 우리를 위해 진정으로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물이며 오늘도 우리가 뛰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바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값진 출발을 지금 바로 실천해 주십시오! 🐾



나의 것까지  
매력적 너무  
빠질까 걱정이군!



## 길에 돌아다니는 유기동물을 포획해 판매해도 되나요?



2008년부터 시행된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기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해당 시·군·자치구에 연락해야 하며 개인적인 포획과 판매를 할 시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유기동물은 주인이 없는 동물이라고 생각하고 무단으로 포획해 판매하거나 학대 후 죽이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9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도로,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돌아다니거나 버려진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동물이 동물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해야 하고 소유자 등이 보호 조치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7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공고 후 10일이 경과해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시·군·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타인이나 단체에 기증이나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동물을 구조한 경우에도 반드시 해당 시·군·자치구에 이를 알려야 하며 관할 보호소 및 시설에서 7일 이상의 보호와 공고를 해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호 및 공고 기간이 지난 동물은 입양이 가능합니다.

지자체 관할 보호소에서는 보호기간이 지난 동물들을 안락사하기도 하지만,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주인이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곳도 지자체 관할 보호소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기간 동안 다른 입양처를 찾아 안락사를 피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기동물을 구조하였을 때는 가장 먼저 원래의 주인을 찾을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인 없이 돌아다니거나 버려진 동물을 함부로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유기동물 발견 시나 구조 시에는 반드시 관할 시·군·자치구에 연락해 구조 후 7일 이상의 보호·공고 기간을 거치도록 해야 합니다.

순수한 의도로 유기동물을 구조해 좋은 가정에 입양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불법으로 포획해 음성적으로 유통시키는 사례 또한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팔려나간 유기동물은 대부분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유기동물 구조가 좋은 의도이든 나쁜 의도이든 모두 불법으로 신고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비둘기 유해 야생동물 지정

전경옥 | 국장

지난 6월 1일 환경부는 집비둘기를 유해야생동물로 규정하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발표했다. 환경부의 개정안은 "집비둘기로 인한 분변 털날림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도시주변에서 건물, 시설물 등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를 유해야생동물로 규정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유해야생동물에 피해가 있을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포획할 수 있다. 즉 이제 비둘기가 멧돼지 등과 같이 유해야생동물이 되면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포획할 수 있게 된다. 지난 3월 환경부가 이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적잖은 파장이 있었다.

지난 6월 1일 환경부는 집비둘기를 유해 야생동물로 규정하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발표했다. 환경부 개정안에 따르면 '집비둘기로 인한 분변 털 날림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도시 주변에서 건물, 시설물 등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를 유해 야생동물로 규정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현행법상 유해 야생동물에 피해가 있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포획할 수 있다. 즉 비둘기가 멧돼지 등과 같이 유해 야생동물이 되면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포획할 수 있게 된다. 지난 3월 환경부가 이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적잖은 파장이 있었다.

동물자유연대는 과학적 근거가 미비하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여론 참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행된 개정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환경부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만큼이나 무분별한 사냥과 포획에 따른 후유증, 그리고 동물복지에 대한 문

제 제기가 잇따르면서 인도적인 공생 관계를 찾고자 노력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는 각 지역에 서식하는 해당 동물의 생태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마구 잡이식 포획이 이뤄지는 경우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전문가들의 식견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법을 개정해 포획의 대상으로 할 만큼 비둘기는 실제로 사람들에게 위험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비둘기에 대한 위험성은 매우 과장돼 있다. 비둘기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는 비둘기가 더럽고 세균과 질병을 퍼뜨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1995년 미국 비둘기수의사협회(the Association of Pigeon veterinarians)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비둘기는 다른 애완동물과 같은 세균 수치가 있다고 한다. 이는 인간과 비둘기 간의 세균 감염의 위험이 인간들이 다른 세균에 감염될 수 있는 수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미국의 새방지 전문가 샬롯 돈넬리(Charlotte Donnelly)가 Cincinnati Environment Advisory Council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비둘기

에 의해 어떤 병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확률은 사람들이 벼락에 맞을 수 있는 확률보다 낮다"고 설명하고 있다. 수의학 박사 데이비드 테일러는 '50년간의 수의사 활동에서 비둘기와 연관된 사람의 질병에 대해 보고 들은 적이 없으며 인간에게 해가 된다는 어떤 증거도 발견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

**셋째,** 환경부는 개체 수 증가에 따른 피해를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하기 이전에 미리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하고 이에 따른 시민들의 여론을 이끌어냈다. 이는 법 개정의 앞뒤가 뒤바뀐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다음은 환경부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다.

1. 어떤 매체를 통해 집비둘기를 유해 야생동물로 규정해 퇴치한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까?

▶ 인터넷(58.9%) TV 등 방송(20.55%)

2. 국부적으로 서식 밀도가 과밀한 지역에서 분변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 건물 부식 등 주민 생활 및 재산상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 찬성(75.34%) 반대(24.66%)

3. 귀하께서는 집비둘기로 인해 직접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지요?

▶ 있다(72.6%) 없다(27.4%)

4. 직접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경우 어떤 피해를 봤는지요?

▶ 차량 등에 배설물 분비(50.68%)  
본인 소유 건물에 동지 설치(15.07%)

5. 집비둘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 먹이에 불임약을 섞어 개체 수를 조절한다.(36.99%)  
먹이 주지 않기 캠페인을 벌인다.(15.07%)

시민들은 이 설문조사가 어떤 과학적 근거에 의해 결정됐는지 사전에 아무 정보도 제공받지 못하고 5개에 불과한 조사 결과를 국민이 원하는 유일한 근거로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설문조사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시민들은 전문가가 밝혀낸 과학적 조사 결과가

아니라 인터넷과 방송을 통해 따오는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들을 그대로 믿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어떤 방식으로 비둘기를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에 대한 정보도 명확하게 알려진 바 없으며, 불임약을 섞어 개체 수를 조절한다는 것 또한 일부 언론을 통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지난해부터 시행됐다는 뉴스를 보도했을 뿐이고 그것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 아직 확인된 것도 없다.

두 번째 질문인 '국부적으로 서식 밀도가 과밀한 지역에서 분변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 건물 부식 등 주민 생활 및 재산상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집비둘기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할 것을 전제로 하고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어서 답변 방향이 이미 결정된 것과 다름없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이미 환경부가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할 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놓고 시민들의 확인을 받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6월 30일 환경부 회의실에서 열린 유해 집비둘기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서는 이미 예전에 비해 육안으로도 많이 비둘기 수가 적어진 게 아니냐는 증거들이 논의됐지만 이것은 비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조절할 수밖에 없다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평가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오히려 아주 피해가 많은 지역에 비둘기를 인도적으로 내쫓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다.

문제는 정부가 나서면서 이제까지 우리 사회의 동물 문제는 누군가 어떤 동물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민원을 넣으면 행정당국이 나서서 이를 해결해 왔고 관행적인 이런 문제 해결 방식은 비둘기 관련 문제에서도 버젓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인간과 동물이 사회에서 공존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은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효율성과 결과만 강조하고 불필요한 행정력으로 인간과 동물을 관리 대상으로만 파악하는 사회에서의 논의와 대화는 불필요한 낭비로만 비쳐질 수밖에 없다. 이는 비둘기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 사회 인식의 성숙도와도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

## 사진으로 보는 진도개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진도개는 국가의 보조를 받으며 국가견으로서 지위를 굳건히 지켜오고 있다. 하지만 실재는 과도한 국가 장려와 산업화의 추세에 밀려 수많은 개들이 불량견으로 낙인 찍히고 도태되고 있다. 개식용 문화가 잔존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순종이 아닌 개들은 손쉽게 개식용 산업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을 뿐 아니라 진도개 중 일부도 개고기용으로 쓰인다는 사실은 진도 내에서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





- ▶ 심사를 받고 있는 진도개.
- ▶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명된 개들은 등록에 필요한 칩을 주입한다.



- ▶ 진도 마을을 돌며 개를 사는 업자의 트럭. 팔려가는 개들은 목줄이 달려있는데, 바로 전까지 누군가의 반려견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 한 재래시장의 전열장에서 발견한 개들. 진돗개와 비슷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



## 진도개, 혈통 보존 정책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전 경 욱 | 국장

전통개의 혈통 보존이라는 명목으로 국가 예산을 투입해 진도에서 이뤄지고 있는 진도개 사육과 그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3월과 7월, 2차에 걸쳐 진도를 방문했다. 1차 조사에서는 진도개 사육과 진도개의 심사 기준 등을 알아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2차 조사에선 외부로 반출되는 진도개의 처리 과정에 대해 알아보려고 했다.



### 심사과정

6개월에 한번 실시하는 공인심사는 진도군에서 미리 선정한 심사위원과 진도개사업소의 직원, 수의사가 동행하는 가운데 각 마을을 돌며 실시된다. 마을회관에서 방송을 통해 심사를 알리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개들을 데리고 나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심사는 6개월 이상 된 개들을 대상으로 하며 심사위원이 체형과 성격, 외모, 치열 등을 보고 육안으로 판단한다. 이 과정을 통해 좋은 진도개라고 판정되면 현장에서 목에 전자 칩을 주입한 후 정보를 입력·관리하게 된다. 이렇게 선정된 개들은 사료비 명목으로 진도군에서 약간의 지원금도 주고 주민들이 데리고 나온 모든 개에게는 기생충 약과 백신 접종이 무료로 제공된다.

### 심사 기준과 도태 과정

진도군의 진도개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불합격한 강아지는 '거세 혹은 도살시키거나 섬 외부로 방출한다'고 돼 있다. 체점 기준은 일반 외모 28점, 체구 25점, 두부 30점, 혈연 7점, 기타 10점으로 총 100점 중 60점 이상이면

합격선이다. 그러나 불합격 처리됐다고 해서 바로 도태 명령서를 주는 것이 아니다. 심사위원, 공무원, 마을 주민들이 인지상정으로 다음 심사 때 다시 나와 보라는 식의 권유로 마무리되기도 한다. 도태 명령서가 내려졌다고 해서 진도군에서 개들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아니다. 불합격된 개들을 처리한다는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농민들이 다소 유연하게 개들을 도태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소위 '질이 좋지 않은 불량견'들을 섬 밖에 사는 친척이나 지인에게 주거나, 파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또 팔 목적의 개들을 뒀다가 간혹 마을을 지나는 업자들에게 파는데, 주민들은 이들이 식용 목적으로 개들을 키우는 업자라는 것을 알고 있다.

### 상업적 목적의 번식견과 혈연주의

진도 곳곳에는 진도개들을 번식하는 농장을 많이 볼 수 있다. 그중 40마리의 개를 키우는 진도개 번식장에 들렀다. 진도개를 연구하고 보존에 힘쓰고 있다는 농장 주인은 진

도개들을 번식시켜 3개월이 되기도 전에 섬 밖으로 파는(3개월 미만의 개들은 반출허가증을 받아 섬 밖으로 팔 수 있다.) 번식업자였다. 전국적으로 진도개 관련 단체만 20개가 넘고 그들마다 진도개에 대한 기준이 다르며, 서로 다른 혈통서를 남발하고 있는 문제점 때문에 진도군에선 기초건을 선정해 출생증명서를 발부한다. 그리고 이 개를 번식시켜 3대가 됐을 때 혈통증명을 해주는 방식의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었다. 농장 주인 역시 기초건 만들기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다. 진도군에서 좋은 진도개 혈통임을 인정받으면 더 높은 이윤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종견의 표준화(스탠더드)를 만들고 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개들을 도태시키는 작업은 어느 나라든 애견 산업의 확장, 발전 과정에서 이미 있어왔다. 우리나라의 진도개는 그런 일반적인 애견산업 발전의 특징뿐 아니라 우리 고유의 개라는 민족적 의식이 더해져 만들어진 개라고 볼 수 있다. 진도는 지리적으로 육지와 떨어져 있어서 순수 혈통을 지키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믿음을 사람들에게 주기도 쉽다. 고려 때 몽골과의 전쟁에서 삼별초의 마지막 항쟁지였다는 역사적 사실은 더욱 진도개를 순혈적 신비주의로 가득 찬 존재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 진도개인지는 아직도 논쟁 중이며, 진도 내에 있던 본래 진도개들이 비싼 값에 외지로 팔려나가고 현재 남아있는 진도개들의 모습은 과거와 다르다는 의견도 적잖이 있어왔다. 심지어 진도군조차 황구와 백구만 진도개로 정하고 다른 모색의 개들은 그 외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만 진도개로 등록할 수 있는 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심사한다.

심사위원은 좋은 진도개를 판단하는 기준조차 모든 일반인도 알 수 있는 기준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기준은 다름아닌 건강하고 잘생긴 외모에 불과했다. 다양한 스탠더드에 대한 진도개 논쟁이 사실은 진도개에게는 어떤 스탠더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도개의 역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진도개의 명칭 : 한글 맞춤법상 진도개가 맞는 표현이나, 진도의 개라는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진도개라는 용어의 사용이 허용되었습니다.

## 진도개의 도태

1차 조사 때 구두로 기준에 미달되는 진도개들이 개장수를 통해 외부로 반출되고 있음을 확인했고, 2차 조사 때에는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진도개를 다수 사육하고 있는 마을에 머물면서 기다려 봤다. 케이지를 실은 트럭이 마을을 돌면서 방송으로 개를 사러왔다고 알렸고, 이미 트럭에는 여러 마리의 황구들이 실려 있었다. 그 개들이 이전에는 한 가정에서 키워졌던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목줄이 채워진 채로 트럭에 실려 있었다. 마을 주민들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못생긴 개들이거나 사육주가 사정상 키울 수 없어서 개들을 팔고 있음을 인정했다. 마을 주민들은 더 이상 기를 수 없는 개들을 처리하는 과정에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고 이것은 마을 주민들의 부도덕한 태도로 보기보다는 오랫동안 굳어진 관행으로 보여졌다.

문제는 개 식용이 잔존해 있다는 것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고 무엇보다 이미 순종견으로서의 진도개는 그 의미는 퇴색하고 있는 반면에 많은 정부 예산이 진도개 보존 관련 사업에 쓰여지고 있

문제는 개 식용이 잔존해 있다는 것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고 무엇보다 이미 순종견으로서의 진도개는 그 의미는 퇴색하고 있는 반면에 많은 정부 예산이 진도개 보존 관련 사업에 쓰여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는 점이다. 확인해본 결과, 진도개 관련 예산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지난해에 비해 올해 편성 예산이 급증했다. 한편에서는 정부에서 보조하는 예산이 진도개 육성에 쓰여지고 다른 쪽에선 이 예산으로 사육된 개들 중 일부를 식용으로 팔고 있다는 현실적 모순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난감할 정도다. 동물자유연대는 진도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음 작업을 준비 중이다. ❸



## 생명이 주는 기쁨

정 유 선 | 백남준 아트센터 아트숍 MD

나에게 있어 고양이라는 종에 대한 첫인상은 매우 좋지 않았다. 쉬는 시간마다 매점으로 달려가기 바빴던 중학생 시절, 매점에 가기 위해 교실 건물 옆 계단으로 내려가는 중, 아이들의 '깹깹~' 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누군가 학교 화단에 훼손된 고양이 사체를 갖다 놓은 거였다. 그 때만해도 난 찡찡한 어린 소녀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저 큰 충격을 받았다. 그 때문인지 동물을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고양이에 대해서 만큼은 좋은 감정이 생기지 않았다. 내게 있어 고양이는 '왠지 기분 나쁜 동물'에 불과했다.

하던 일을 그만두고 슬럼프에 빠져 있던 4년 전의 어느 날, 우연히도 아는 후배로부터 분양받아 고양이를 키우게 됐다. 대바구니에 넣어 데려온 새끼 고양이는 중학교 때 받았던 충격을 참나에 사라지게 만들 정도로 몹시 사랑스러웠다. 첫날 밤, 소파 위에 폭신한 담요를 깔아주고 그 위에 녀석을 재운 후 방으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우는 소리가 들렸다. 밖으로 급히 나가보

니 녀석이 배를 보이며 '그르륵~ 그르륵'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닌가. 나는 저러다 죽는 게 아닌가 싶어 녀석 옆에서 놀란 가슴을 추스르며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아침, 동물병원에서 '그르륵' 소리의 진상을 알았을 때 나는 녀석을 껴안고 얼마나 감격해 했는지 모른다. 고양이는 기분이 좋거나 마음이 편할 때 '그르륵' 소리를 낸다. 첫날밤부터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여준 녀석에게 고마움이 솟아났다.

두 번째 운명적 만남은 병원에서 이루어졌다. 국립의료원으로 큰 수술을 한 친구의 문병을 갔는데 담당하다는 친구와 함께 병원 앞, 작은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둘째를 만났다. 발을 활뛴 노란 고양이는 날 발

견하더니 주저 없이 내 곁으로 다가와 내 다리에 제뺨을 비비며 떠날 생각을 안 했다. 벤치에 앉자 노란 고양이가 녀석은 훌쩍 벤치로 뛰어 올라 내 옆에 앉았다. 옆을 지나치던 한 환자분이 노란 고양이를 보더니 한 마디 툴 던진다. "이 녀석은 비둘기도 잡는 영민한 놈이에요. 이 공원 대장이지. 밤 때 되면 식당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추울 땐 따뜻한 병원 로비의 대형 TV 뒤에서 자거든." 그렇게 툴툴하다는 녀석을 자세히 살펴보니 한 쪽 앞발이 굼았는지 심하게 부어 있었다. 부은 부위를 살짝 만지자 녀석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앵앵' 울어댔다. 계속 내 옆을 떠나지 않고 나를 졸졸 쫓아다니는 녀석을 그냥 두고 집에 올 순 없었다. 한참을 고민하다 난 결국 녀석을 데리고 동물 병원에 갔다. 털을 밀고나자 바로 수술이 시작되었는데 썩은 피고름 한 바가지가 터져 나왔다. 한 이틀 늦었으면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다. 그제야 녀석이 내 곁을 떠나지 않았던 이유를 알게 되었다. 녀석은 자기 목숨을 살려낼 사람이 나라는 걸 육감으로 알아차린 것이다. 신기한 녀석...

언니는 노란 털의 녀석에게 '가을'이란 이름을 지어





◀ 수술한 다리가 다 나았는데도 1년간 마음을 열지 못하고 사고를 다발로 쳤던 익종, 가을이 마련 나 없으면 못 사는 사람 남자는 둘째 아들 가을이는 너무나도 외갓해였다.

주었다. 우리 집에 온 후 일주일이지 난 후 상처가 아물자 녀석은 그 때부터 나만 보면 으르렁대고 발톱을 세우기 시작했다. 나만 다가가면 사나워 지는

누군가의 화풀이용으로 발에 채였을 불쌍한 가을이...

고양이는 예로부터 '영물', '귀신을 보는 동물', '원한을 품는 동물'이라는 선입견에 휩싸여 사람을 잘 따르는 개에 비해 많은 학대를 받아 왔다. 중세 시대에는 마녀의 시종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참혹한 핍박을 받기도 했다. 수 천 마리의 고양이들이 높은 탑 위에서 떨어져 죽거나 화형 당하기도 했다. 길거리에서 길 고양이를 만나는 사람 열 명 중, 여덟 명은 길 고양이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저 자기 눈에 띄었다는 것만으로도 재수 없어하며 'shit' '저리 가!' 하며 으름장을 놓기도 한다. 고양이는 개만큼 사람을 적극적으로 따르진 않는다. 그 때문에 개는 사람에게 이롭고, 고양이는 사람에게 해롭다는 이분법적인 사고는 매우 위험하다. 고양이가 가진 성품이 개와 다르다고 하여, 핍박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 다른 반려동물과 마찬가지로 고양이 역시, 인간에게 따뜻한 애정을 주는 존재이며,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해소시켜주는 고마운 존재다. 나와 다른 종을 통해 생명이 주는 기쁨과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므로 자라나는 세대에게는 교육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공존하는 것이야말로, 궁극적으로 모두를 위하는 길일 것이다. ㉔



▲ 고양이와의 인연의 시작. 첫째 아들 풀풀이 익사도를 잘 입은 곳에 놓고 우아하기 짝이 없는 녀석이다. 뒤의 고양이는 언니의 첫 이름이 된 핑치.

가을이를 보니 너무 서운했고 속상했다. 또한 가을이는 첫째, 풀풀이하고도 잘 지내지 못했다. 암전한 풀풀이를 힘 센 가을이는 시도 때도 없이 괴롭혔다. 하루는 너무 속상하고 답답해서 고양이를 오랫동안 길러온 친구에게 사정을 털어냈다. '잠은 내 옆에서 자는데 내가 만지려고 하면 대뜸 사나워지거든. 대체 이유가 뭘까? 친구는 '아마도 너를 만나기 전에 사람에게 학대를 심하게 받은 적이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해준다. 어떤 참혹한 사연이 있는지 알 도리가 없었지만 나는 무작정 녀석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녀석은 나를 경계하고 밤새울거나, 내가 외출한 사이 집을 엉망으로 만들기도 했다. '온 집안을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악당 가을이를 다시 국립의료원 공원에 놓아 주고 올까,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게 해주는 게 녀석에게 더 나은 일이 아닐까' 난 수백 번도 넘게 망설이고 또 고민을 했다. 그렇게 애면글면 하며 일 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다. 어느 날, 물릴 걸 각오하고 가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는데 '으르렁' 저릴 거라 생각했던 가을이는 예상 외로 암전하게 내 손길을 받아들였다. 놀란 내가 기쁨에 젖어 온 전신을 쓰다듬어주자 '고르륵~ 고르륵' 거리며 몸을 배배 꼬고 배를 드러낸다. 나를 받아들이고 신뢰하는데 1년이나 걸리다니, 녀석이 혹독한 세상에서 얼마나 깊고 큰 상처를 받았을지 대충 가늠이 되었다. 어느 누군가의 심심풀이로 돌팔매질을 당하고 또 어느

INTERVIEW

“사진을 통해  
동물과 만나고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통합니다”

김현성 사진작가

전경옥 국왕 | 취재 | 정리

##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선 동물을 좋아하지 않거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는 자세를 갖춰야 할 거 같아요

애견 인구가 천 만 명의 시대라고 한다. 개와 함께 살고 있거나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 개를 키우고 있는, 직·간접적으로 개와 연결된 사람이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에 달한다. 이쯤 되면 네 명 중 한 명은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지만 길을 잃거나 버려진 개들이 넘쳐나고 학대받는 동물의 사연을 신고하는 전화도 끊이지 않는다.

왜 그럴까. 개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모두 개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특별히 누군가는 개를 통해 새로운 삶을 경험하고 의식의 발전을 꾀하기도 한다. 동물을 통해 열린 새로운 삶.

사진작가 김현성님은 어릴 적부터 동물 가까이에서 함께 살아온 것이 중요한 삶의 한 조각이었다고 회상한다. 동물을 좋아하는 어머니는 늘 유기견을 집으로 데리고 왔다. 그래서 강아지 수십 마리와 함께 살아가는 일은 늘 자연스러웠다. 그렇다고 버려진 개들을 돌보는 일이 항상 보람과 즐거움만 있다는 건 아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 개로부터 출발한 시선은 다른 동물에게도 향하게 했고 동물을 아무 이유 없이 괴롭히는 동네 친구들의 행동을 보고 괴로워했다.

무엇을 안다는 건 인간에게 지혜를 주고, 지식은 인간의 의식과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 그러나 발전하는 길로 가기까지 개인에게는 새로운 감정의 고통이 생긴다. 그러나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 고통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는다.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김현성님은 동물을 대하는 인간에 대한 의식이 바뀌도록 노력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삶의 방향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2009년 동물자유연대 사진전'은 작가 김현성님의 도움으로 일궈낸 또 하나의 작품이었다. 그가 작업한 유명인들과 동물자유연대의 개들 사진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냈다. 사람들에게 학대

를 받다 구조돼 동물자유연대의 행당동 사무실 한쪽에 살고 있는 일구가 디자이너 송자인 씨와 함께 사진을 찍으며 활짝 웃는 표정은 행복감 그 자체를 느끼게 한다.

연예인이나 모델들과 작업을 주로 하는 사진작가가 동물을 모델로 해 사진을 찍는 작업에는 즐거움보다는 괴로움이 더 많다고 한다. 사진전을 위한 사진은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목적을 전제로 한 작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낮은 환경에 동물은 노출되게 마련이다.

하지만 김현성님의 고민과 우려는 사진 속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다. 아이들의 편안한 웃음과 감동이 모두 사진 속에 담겼고 지난 7월 24일부터 나흘간 강남 데일리 프로젝트에서 열린 사진전을 열어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다. 또한 김현성님뿐 아니라 여러 유명인, 데일리 프로젝트 등이 협찬하거나 자원봉사로 사진전 행사에 참여했다.

김현성님은 그동안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대하는 모습을 많이 봤다고 한다. 물론 이런 행동의 배경에는 인간에 대한 실망감이 있다. 동물을 학대하거나 무심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실망은 때로는 반감으로 변질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동물보호 활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 나쁜 선입관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우리는 동물을 위해 일하기도 하지만 변화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다.

현재 김현성님은 패션 잡지를 기획 중이다. 모피를 입은 모델과 유명인들은 참여할 수 없고 가죽 제품도 최대한 절제된다. 동물실험을 하지 않은 화장품에 대한 안내, 국내외 유명 동물과 환경단체들도 소개한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잡지로서는 최초의 시도이며 이를 통해 일반인 스스로가 동물과 환경에 대한 생각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성님과 동물자유연대의 소중한 인연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 현 장 에 서

## 2009 반려동물 사진 전시회

손혜원 | 선임기자

동물자유연대가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청담동의 데일리프로젝트에서 반려동물 사진 전시회를 열었다. 이 사진전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반려동물이 올바르게 인간과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고 동물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희망, 동행, 관심'이라는 세 가지 테마로 촬영은 진행됐다. 전시회의 작품들은 주로 김현성 사진작가님의 작품이 주를 이뤘고 그 외에도 일반 시민들의 사진 공모전 출품작과 동물자유연대가 현장 활동 중에 만난 유기동물, 피학대 동물, 식용으로 희생된 반려동물들의 사진이 함께 전시됐다.

사진전은 지난해부터 기획하고 추진돼온 사업이지만, 이런 것을 기획하고 진행한 경험이 아주 없었던지라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했다. 그중 가장 막막했던 일은 모델이 되어 줄 연예인 섭외였다. 전혀 연관조차 없었던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찾아가 무료로 사진 모델이 돼 달라고 할 수는 없는 일. 다방면으로 알아보던 중 이번 사진전을 위한 작품을 촬영해 주기로 한 김현성 사진작가님께 조심스럽게 모델 섭외를 부탁드렸다.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김현성 작가님께서도 너무도 흔쾌히 이번 사진전을 위해 자신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모두 해 주겠다 해 우리는 천군만마를 얻은 듯했다. 덕분에 큰 문제를 덜었고, 김현성 작가님은 더 나아가 갤러리 대관부터 홍보 포스터 제작까지 해결해 주셔서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전시회를 진행할 수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대한민국의 내로라하는 많은 유명인들이 동참해 주고 촬영은 시작됐다. 촬영을 함께한 동물들은 모두

우리 단체에서 보호 중이거나 입양을 보낸 개들이었다. 특히 현재 우리 단체에 있는 개들만이나 많은 수의 개를 보호 중인 김승우 감사님 부부께서 많이 애써 주셨다. 촬영 중 우리를 가장 긴장하게 만들었던 긴 낮선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소란스러운 분위기로 개들 또한 잔뜩 긴장한 상태라 혹시 싸우지나 않을까, 다른 사고나 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우리는 긴장의 고삐를 놓을 수 없었다. 특히 대형견이나 다른 곳에 입양을 가서 우리를 낯설어 하는 개들을 촬영할 때는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첫 촬영은 요즘 뜨는 아이돌 가수 중 최고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소녀시대와 샤이니였다. 첫 촬영인 데다 사진을 찍을 인원이 많다보니 개들 또한 많이 데려가야 했기에 설렘보다는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청담동의 스튜디오로 향했다. 다행히 우리의 우려와는 달리 소녀들과 강아지들은 너무 즐겁게 어울렸고, 촬영 또한 큰 사고 없이 진행됐다. 촬영 때는 열음을 고수하던 버니가 촬영을 끝나고 나니 갖은 예교로 소녀시대를 즐겁게 했다. 자기보다 덩치가 더 큰 태종이와 함께 촬영했던 씨니, 자기가 어렸을 때 집을 나갔던 개와 똑같이 생긴 해피를 보고 마음 아파했던 서현, 어떻게 개를 때릴 수 있느냐며 개들이 학대받았던 흔적에 마음 아파하던 샤이니 키 등 평상시에 접하기 힘든 연예인들의 인간적인 면모도 볼 수 있었다.

어느새 촬영이 끝나고 나니 새벽 1시를 훌쩍 넘긴 시간이 됐다. 윤정임 텃장님과 나는 고민 끝에 개들을 데리고 나의 작은 옥탑방에서 잤는데 모두 어찌나 애교가 많던지, 옆으로 파고들어 배를 보이며 둥가 둥가 춤을 추는데 덩치



도 큰 녀석들이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을 이렇게나 좋아하는 것을 보니 마음 한쪽이 찡했다.

첫 촬영 이후로 약간의 노하우가 생긴 우리는 다음부터는 더욱 순조롭게 촬영할 수 있었다. 다행히 대부분의 개들은 스튜디오에 나오는 것을 매우 좋아했다. 마치 행당동 사무실이 세상의 전부인양 살다가 간만에 나들이를 나온 개들 또한 너무 즐거워하는 모습에 안도했지만 촬영이 시작되면 플래시가 번쩍거리는데다 낯선 사람 품에 안겨 있으려니 녀석들도 불안한지 우리 뜻대로 해주지 않아 촬영에 어려움도 있었다. 계속 다른 곳을 바라보거나 엉뚱한 행동으로 촬영을 중단하게 만들거나 해서 곤란한 상황이 속출했다. 동물 권익을 보호하려는 사람의 뜻을 이루고자 동물에게 불편을 끼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지만, '대의를 위해 너희가 잠시만 참아줘' 하고 속으로 간절히 빌며 작가님과 모델들 모두 최대한 빨리 촬영을 끝내기 위해 동물들을 배려하며 무서운 집중력을 발휘해 촬영에 임했다.

식용으로 팔려 보신탕이 될 뻔했던 강렬한 인상의 말라뮤트 한비와 어린 듯 축축한 눈빛의 이연희 양, 촬영 때는 너무 경직된 상태여서 탈락되나 싶었는데 막상 사진을 보니까 가장 예쁘게 나왔던 발바리 막내와 공효진 씨, 긴장한 우리들을 특유의 쾌활함으로 풀어준 이하나 씨, 다리 부상에도 불구하고 웃는 얼굴로 남자를 경계하는 애꾸눈 메리를 쓰다듬으며 친해지려한 김민준 씨, 다른 일로 스튜디오에

왔다가 즉석에서 모델에 응해준 지현정 씨 등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분들이 자신만의 몸짓으로 '더 이상 동물들을 학대하지 말아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를 외치며 모두의 마음을 담은 사진 작품들이 완성됐다.

사진전을 진행하면서 우리의 뜻을 알아주고 기꺼이 동참해 주시는 많은 분들을 만났다. 모델에 자원해 주신 유명인들 뿐 아니라 데일리프로젝트, 제인바이자이닝, 드림액자, 내추럴발란스, 퍼피아, 디어독 등 많은 단체와 개인이 우리 행사의 취지에 동감하고 최대한의 협조와 지지를 보내주었다. 심지어 전시장의 주차요원까지도 좋은 일을 한다며 주차를 하는 데도 최대한 편의를 봐주었다. 전 그분들의 호의를 통해 희망을 품었다. 물론 유명인들의 유명세를 동원해 이런 행사를 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진 분들도 계시지만 대중에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활동에 동감하고 함께 참여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동물복지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데 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대중의 동감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번 전시회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실이 옳다고 해서 모두가 그 사실을 지지하고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해와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 설령 그것이 나에게서는 너무도 당연한 일일지라도 타인을 설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우리의 작은 한걸음 한걸음이 언젠가는 인간과 동물이 아름답게 공존하는 미래의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한다. ㉔



#### ■ 반려동물 사진 공모전 개최



반려동물 사진 공모전 대상 - 김하연 님 (충청)

펫 산업의 부흥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많아졌지만 아직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정착되지 않고 있다. 동물자유연대에서는 반려동물은 우리의 소중한 가족이며 친구라는 의미로 '우리 개 우리 가족'이라는 주제로 반려동물 사진을 공모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사진들을 보내줬는데 영광의 대상은 김하연 님이 수상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심사를 맡아주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김현성님께도 감사드립니다.

#### ■ 고래포경금지 운동

농림수산식품부와 울산시에서 사실상 고래 고기를 합법화 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동물자유연대는 고래포경금지 운동을 펼치고 있다. 고래를 잡는 방식은 잔인무도한데다 포경이 확대되면 고래가 멸종될 가능성이 높다. 고래의 개체수가 늘어나 어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라는 것은 일부 사람들의 주관적 판단에 불과하며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다.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정책은 한 지역사회가 사라진 전통 위에 새로운 문화를 재창립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더욱 그 지역을 낙후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 ■ 싸이월드 나눔써포터즈 당첨

싸이월드에서 진행하는 '제6회 무더운 여름나기 나눔 서포터즈'에 동물자유연대의 사연이 당첨됐다. 3개 사회공헌단체의 사연이 소개되고 투표율에 따라 후원금이 배분되는데, 동물자유연대가 영광의 1위를 차지하고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게 됐다. 이 후원금은 건사 및 사무실 보수공사, 고양이 운동장 설치, 동물 치료비 등으로 사용됐다.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 복날 동물학대방지 퍼포먼스



동물자유연대는 초복인 7월 14일 서울 명동에서 식용으로 쓰이는 등 고등 받고 희생 당하는 우리 개들을 위해 캠페인을 진행했다. 흑인과 백인으로 이뤄진 외국인과 한국인이 함께 피켓을 들고 피부색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평등한 것처럼 누렁이, 사냥, 푸들 등 서로 다른 종의 개로 분장한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식용견, 애원견 구분 없이 모든 개가 길다는 것을 호소했다. 한쪽에서는 시민들에게 보신탄 대신 제철 과일 복숭아로 더위를 식히자는 의미로 복숭아를 나눠 줬다.

2009년 5월~ 2009년 8월

8월 13일 말복에는 대학로 거리에서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이번 퍼포먼스는 지난 6월 입양자의 부주의로 개소주가 된 구름이와 식용으로 희생된 개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꽃상여로 이들의 영혼을 위로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다.

이 땅에서 개 식용이 사라지고 반려동물과 인간의 공존이 아름답게 정착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 반려동물 사진 전시회 개최



동물자유연대에서는 7월 23일에서 26일까지 반려동물 사진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 사진전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 반려동물이 올바르게 인간과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문화적 토양을 정착시키고 동물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이번 사진전에는 이런 취지에 공감하는 많은 유명인들이 참여했다. 소녀시대, 이연희, 이하나, 김민준, 사이니 등의 연예인들과 디자이너 정욱준, 송자인 등이 버려진 동물들과 함께 참여했고 일반 시민들의 사진 공모전 출품작과 동물자유연대가 현장 활동 중에 만난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 식용으로 희생된 반려동물들의 사진도 함께 전시됐다.

#### ■ 진도개 조사

동물자유연대는 1년에 두 차례 시행하는 진도개 일제 심사 및 방역 일정에 맞춰 심사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불합격 처리된 개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조사하기 위해 진도에 직접 다녀왔다. 우리 민족 고유의 개라는 지부심으로 순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지만 진짜 진도개의 모습은 아직 논쟁 중이라 모호한 기준으로 심사를 하고 있으며 불합격 진도개들의 상당수는 보신탄용으로 팔려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쪽에선 정부에서 보조하는 예산이 쓰이고, 다른 쪽에선 이들 중 일부가 식용으로 팔려간다는 현실적 모순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

#### ■ 동물실험 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 여부 조사

동물자유연대는 각 대학과 대학병원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 여부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실험의 심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 설문지를 작성하고 발송했다. 이를 통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미설치 기관에는 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권유하고 각 기관의 동물실험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려 보다 윤리적인 동물실험과 대체실험의 적극적인 도입을 고무시키고자 한다.

#### ■ 동물체험학습 시설의 동물학대 방지운동

여름방학을 맞아 각종 기관들에서 어린이를 위한 동물체험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어 동물자유연대에서 행사장을 찾아가 보았다. 대부분의 행사장에는 많은 수의 동물들이 매우 좁고 열악한 환경에 전시되고 있으며 어린이들은 무방비 상태인 동물들을 마구 만지고 심지어 괴롭히기까지 하는 등 체험이라는 명목 하에 증합적인 동물학대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것은 매우 비교육적이며 생명경시를 더욱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이런 행사에서 동물학대 행위 근절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Live on vegetables

## 여름철의 별미 콩국수와 사계절 건강식 콩탕



조희경 | 대표

무더위도 슬슬 물러갈 때가 됐지만 아직까진 더위가 남아서인지 입맛도 없고 기운이 떨어질 때가 간혹 있네요. 이럴 때 저는 콩국수와 양배추 쌈을 단골 메뉴로 선택한답니다. 재료와 요리 과정도 간편해서 집에서 요리하는 것도 쉽습니다. 그리고 콩을 갈아서 보글보글 끓여 먹는 콩탕은 사시사철 즐겨먹는 찌개인데요. 밥이 없을 땐 한 끼 저녁 식사로, 또는 다이어트식으로도 그만입니다.

아! 발에서 나는 고기라는 콩이 우리 몸에 좋은 것은 새삼 설명을 안 해도 다 아시죠? ㅎㅎ

### » 콩국수 만드는 법

재료

콩국수 재료 : 콩(서리태 또는 노란 콩), 마른 국수, 소금, 오이  
콩탕 재료 : 콩, 양파, 표고버섯, 다시마 국물



1. 콩은 반나절 이상 불려야 해요. 전날 밤에 미리 물에 폭 담가두세요.
2. 콩을 찬물에 넣고 삶기 시작하는데, 한번 폭 끓여오르기 시작한 후 2~3분 정도 더 끓여서 살짝 익힌 상태가 되도록 해야 해요. 콩을 삶는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해요. 덜 익은 콩을 먹으면 배앓이를 할 수 있고, 너무 폭 익으면 메주가 되기 때문에 고소한 맛이 안 나요.
3. 익힌 콩은 찬물에 담가 손으로 박박 문질러서 콩 껍질을 벗겨서 버리세요.
4. 껍질을 벗긴 삶은 콩에 물을 약간 넣고 믹서로 곱게 갈아요.
5. 국수는 삶아서 그릇에 담아요. 여기에 곱게 갈 콩 국물을 붓습니다.  
소금으로 간을 해서 먹으면 되는데, 반드시 먹기 직전에 소금을 넣어야지 끓여놓은 콩 국물에 넣으면 맛이 금방 변합니다.

### » 콩탕 만드는 법

1. 미리 준비해둔 콩 국물로 콩탕을 만들어요.  
콩국수용보다 껍질을 덜 벗기거나 조금만 갈아도 돼요.
2. 다시마 우린 물에 갈아 둔 콩물을 붓고 잘게 다진 버섯과 양파를 넣어 보글보글 끓이다가 소금 또는 새우젓을 넣어 간을 해요.



구조돼 동물자유연대에 오기 전까지 힘들고 지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행당터의 아이들은 어느새 밝은 표정과 건강한 몸으로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여기 재롱둥이들이 우리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지... 요즘은 가끔 이 녀석들의 자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예전의 고통을 다 잊은 것처럼 보여 마음이 참 평화롭습니다.  
그러다 깨서 단체로 짖어대면 평화가 깨지긴 하지만요,  
그럼 몸도 마음도 편안해진 행당터 아기들의 낮잠 시간을 잠시 엿볼까요? ☺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고애미 입니다.

뜨겁던 한여름이 훌쩍 지나갔어요  
막바지 더위에 건강들 하신 지용~

요즘 제 상황은  
무릎인대 파열로 인한  
한여름 통깁스라는 고행중에 있습니다.  
계단을 헛딛고 굴러서



간지러운데  
긁는 건 옷걸이  
가 최고!

아...  
따분...



인간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자세로  
착지를 한게 원인이지요.

하루종일 누워만 있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유없는 학대로 여기저기  
부러지고 방치되는 아이들은 그 고통이  
어느정도 일까? 이렇게 깁스하고  
진통제를 먹고있는 나도 이렇게 아픈데...

관심과 정성을 모아주시는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에게  
희망이겠지요.

마고애미♡



우리모두  
힘내자구요!! 아자

살인적인  
스멜스!

다가오지  
마세요



Illustration by 이은영



동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몫을 빼앗아 동물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닌,  
소외된 약자에 대한 분배의 자비심입니다.

함께  
나누는 **삼**

발행처 동물자유연대 · (사)한국동물복지협회 서울 성동구 행당동 307-18 T 02-2292-6337 F 02-2292-6339  
발행인 조희경 발행일 2009년 8월 30일 편집·진행 손해원 교정·교열 이정애 일러스트 이은영  
게간지 / 2009. 여름호 등록번호 성동바 00004 [www.animals.or.kr](http://www.animals.or.kr) 디자인·제작 동방기획(02-2277-0365)